

시연施連칼럼

시골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음공파회장

내리 4권의 수필집을 펴낸 작가다. 수필가인 부인 장성희(1965년생) 작가는 무려 네 가지 자격증을 가졌다. 2012년 유기농업기능사(농림수산식품부)와 2013년 한식조리기능사(농식조리 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이다. 이들 부부가 지난 10년 사이에 쓴 글은 200자 원고지로 만장을 넘을 것 같다. 부인과는 경남대학교에서 만나 지난 1992년 결혼했다.

권현구 축전은 귀농 10년을 채웠으니 그의 책 제목처럼 낭만 농부를 알리진 못하겠지만, 포항에서 포스코 관련 잘 나가는 기업에서 책상물림을 했던 직장을 떠나 그가 태어난 예천 창동보다 더 산골 마을에 귀향해서 꽃 속에 묻힌 후천적 삶을 성공시켰다.

이들 부부는 'KBS 6시 내고향'과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도 출연, 자연이 담고 하늘이 익히는 명품 전통장을 전국에 알리는 명인이 됐다. 천여평의 공밭을 직접 재배하고 부족한 공부는 이웃 농가의 도움을 얻어 계약재배로 지급자족과 옛장담고기 원칙을 고집스레 지키고 있다. 2015년 간장 등 7건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두었다.

예천 매장에서 태어나 신교육을 받았지만 한학(漢學)에 밝고 특히 모필(毛筆) 글씨를 잘 써 종종 대사에 늘 붓을 잡았던 부친父親 韓諱 용한容漢 공공의 모선돈족 정신을 뒤어 닮았다. 고려高麗 말 불사이군(不事二君), 이신벌군(以臣伐君)의 신념대로 살기 위해 조선朝鮮 개국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예천 염송산을 은거지로 선택했던 판도공(版圖公, 韓諱 勳 17世)을 기리기 위한 후손 모임을 이끌고 심모원려(深謀遠慮)하고 친친지의(親親之義)를 쌓기 위해 <명가 안동권씨, 국판 220쪽>를 자비로 출판, 후손들에게 나누었다.

'명가 안동권씨'는 신라新羅 말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의 사성 유래에서 고려 후기 15개 파에서 현달한 후손 등 사료를 담은 역사서여서 후손들로서는 꼭 읽을 책이다.



권현구 수필집



권현구 작가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2>



권갑현 편집위원장

<야일문집>은 야일(野逸) 권연(權濂, 1571~1635) 공의 시문(詩文), 교유한 분들의 편지, 공의 장갈문(狀稿文) 등을 모은 4권 1책의 석인본(石印本)이다.

공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의 22세손으로 좌윤공파(佐尹公派)이다. 자(字)는 자심(子深)이며, 호(號)가 야일(野逸)이다. 부친은 진사(進士) 권응성(權應星, 1530~1571)이다.

어려서 부친상을 당하여 모친의 가르침을 받았다. 6~7세에 글을 지을 줄 알아 집안의 기대를 받았다. 1580년 열 살 때 모친상을 당하여 예제(禮制)를 치름에 성인과 다를 바가 없었고, 백씨 권계(權, 군자감봉사 역임)를 따라 제전(祭奠)에서 게으른 모습이 없었으니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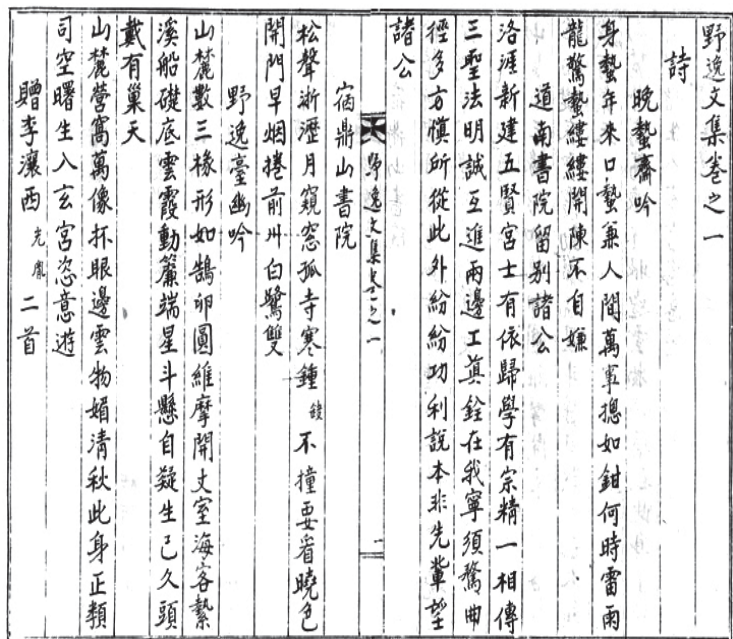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을에서 의병소모장(義兵召募將)으로 추대하여 23세의 나이에 광재우(郭再祐, 1552~1617) 장군에게 나아가 화왕산성(火旺山城)을 지켰다.

1599년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서애 공이 관직을 사퇴하고 서미동(西微洞)의 정사(精舍)에 있을 때 좌우에서 모시며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서애 공이 세상을 떠나자 장례(葬禮)에 정성을 다하였다. 그 뒤 재행(才行)으로 천거되어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집 뒷산에 야일대(野逸臺)를 지어 당시 명망 높던 단곡(丹谷) 곽진(郭鎭, 1568~1633)·이재(滌齋) 조우인(曹友仁, 1561~1625)·양서(襄西) 이광윤(李光胤, 1564~1637) 같은 제현(諸賢)과 날마다 시를 읊으며 즐겼다.

1623년 인조(仁祖)가 즉위하자 공은 "경화(更化)의 초기에 과거에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마침내 갑자(甲子, 1624) 증광시(增廣試)에 나아가 생원이 되었으니 나이 52세였다. 성균관에 있을 때 노전(蘆川) 이기발(李起發, 1602~1662)이 공을 한 번 보고는 "금세(今世)의 돈후하고 고아(高雅)한 풍모를 비로소 이 사람에게서 본다"라고 하였다.

성오(省吾) 이개립(李介立, 1546~1625)·양서(襄西) 이광윤 등과 정산서원(鼎山書院)을 세우고,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위패를 봉안(奉安)하였으며, 그 뒤 향현사(鄕賢祠)와 오천서당(吾川書堂)도 모두 공이 수창(修翊)한 것이다.

<야일문집>은 1806년(순조 6) 사손(嗣孫) 권상의(權尙義)의 요청으로 류규(柳, 1730~1808)가 지은 행장을 신고 1권을 만들었으나 간행하지 못하였고, 공의 사후 278년째 되는 1912년에 공의 후손인 권영만(權寧晩)·권용덕(權容德)이 유고(遺稿)를 수습하고, 권오인(權五寅, 1909~1974)에



계 교정과 서문을 부탁하여 4권 1책으로 간행하였다.

제1권은 첫머리에 권오인의 서문이 있고, 이어 시(詩) 15세·서(序) 3편·축문(祝文) 2편·제문(祭文) 1편·발(跋) 1편·전(箋) 1편·책(策) 3편·논(論) 1편 등이 실려 있다. 제2권은 부록으로 18인이 보내는 26수의 시가 실려 있으며, 제3권에는 26인 31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제4권도 부록으로 행장·묘갈명·수갈시·고유문·야일대기(野逸臺記)가 실렸으며, 맨 뒤에는 김국현(金國鉉)·권영만(權寧晩)이 지은 발문 2편이 있다.

본 문집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야일공 중에서 국역하여 원본영인 합본으로 출간되었다.

다음은 당시 광해군의 정치가 이치에 어긋나고 어지러워 세상일이 날로 그릇되자 공이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어 더 이상 과거공부를 하지 않고 만첩재(晩齋)를 짓고 읊은 것이다.

晩齋齋吟(만첩재음) 만첩재에서 읊다

身數年來口齋兼(신첩년래구침겸)
몸을 숨긴 지 몇 해 지나 입도 함께 숨기니
人間萬事地如鉗(인간만사옹여겸)
인간세상 온갖 일이 모두 칼을 씌운 것 같네
何時雷雨龍驚蟄(하시뇌우용경첩)
언제 우레 비 쏟아져 용이 놀라 겨울잠 깨어
縷纒開隙不自嫌(누루개진물자렴)
자세히 늘어놓아도 절로 꺼리지 않게 될까

다음은 우리나라 5현(五賢)인 정몽주·김공필·정여창·이언적·이황의 위패를 모신 도남서원(道南書院)에서 제공(諸公)과 머물다 떠나면서 지은 시이다.

道南書院留別諸公(도남서원유별제공)

도남서원에 여러 공들과 머물다 작별하다
洛涯新建五賢宮(낙야신건오현궁)
낙동강가에 새로 오현을 모시는 사당을 지으니
士有依歸學有宗(사유의귀학유종)
선비는 의귀할 곳 있고 학문은 종주가 있게 됐네
精一相傳三聖法(정일상전삼성법)
정일을 서로 전하니 요순우세 문성인의 법이고
明誠互進兩邊工(명성호진양변공)
명과 성의 두 방면 공부는 서로 진전시켜야 하네
眞鎡在我學須驚(진전재야녕수무)
진리는 나에게 달려있으니 어찌 꼭 힘써야 하나
曲徑多方慎所從(곡경다방신소종)
굽은 길 셋길 여러 갈래니 따를 바를 삼가야 하리
此外紛紛功利說(차외분분공리설)
이 외에 어지러운 공명과 이익에 관한 여러 말은
本非先輩望諸公(본비선배망제공)
본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바라신 것이 아니라네

제3구의 정일(精一)은 '유정유일(惟精惟一)'을 줄인 말로서 순(舜) 임금, 우(禹) 임금에게 전수한 심법(心法) 중의 한 구절이다. 제5구의 명성(明誠)은 <중용(中庸)>에 말한 "성(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性)이라 하고, 명(明)으로 말미암아 성(誠)해지는 것을 교(教)라 이르니, 성(誠)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誠)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감동(監董) 권횡(權鉞)과 해조문(解潮文)

충남 강경(江景)은 옛갈로 유명하다. 금강을 끼고 살아서인지 그 지명에도 강(江)이 들어 있다. 금강 천변 옛 강경포구 주변에는 옥녀봉이 있는데 정상 부근 바위 절벽에는 가로 131cm, 세로 110cm의 음각(陰刻) 평면 위에 총 190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일명 해조문(解潮文)이다.

'해'자는 바다(海)자가 아니라 조수를 풀이하고 해석하는 글이라는 의미이다. 밀물과 썰물 때를 잘 알아야 했기 때문에 1860년경에 밀물과 썰물의 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방식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물이 들어오는 만조(滿潮) 시각과 가장 높은 수위를(潮高) 예측하는 방식이다.

강경은 일제 적산가옥 등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유명하다. 논산시는 이곳과 함께 해조문 바위를 찾는 이들을 위해 설명문을 설치해 두었다.

해조문 미지명에 감동(監董) 서항순(徐恒淳), 권횡(權鉞)이라고 나오는데 감동(監董)은 금강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연구할 때 감독의 임무를 수행한 직책인 듯하다. 그러나 어느 자료에는 권횡(權鉞)이라고 적혀 있고, 어느 자료에는 권횡(權鉞)이라고 나온다. 바위에 새겨진 글자를 자세히 보니 권횡이 맞는 것 같다. 인터넷 족보에서 권횡과 권황 모두 검색해 봐도 도무지 누구인지 검색이 안 된다.

해조문 설명문에 의하면 강경포구의 밀물과 썰물의 발생 원인과 시각, 높이를 기록한 조석표(潮汐標)로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석표(潮汐標)는 시각의 변화만을 다루면서 물발의 세기를 언급할 뿐이었는데, 암각문의 서자 송심두(宋心斗)는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원리를 전통사상에 따라 풀이하고 처음으로 만조시각(滿潮時刻)과 함께 물의 높이를 다루고, 또 그

것을 계량화하여 표시하였다. 이 점에서 암각 해조문은 비록 소박하지만 현재 조석표의 두 요소인 시각과 높이를 모두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조석표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조문은 시각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구성요소를 구비한 획기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해양사(海洋史)에 도 큰 의미를 가지는 조석표라 할 수 있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에 유서 깊은 포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포구에 누구라도 쉽게 보고 고기잡이와 항해, 소금 생산 등 해양 관련 모든 부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조문을 새겨놓은 곳은 강경포구가 유일하다.라고 설명한다.

해조문(解潮文) 원문(原文)과 해석

地浮與海上下隨氣(지부여해상하수기) 땅은 바다와 더불어 떠 있으면서 기를 따라 오르내린다.

地上江水生於一歸之海為汐(지상강수생어일귀지해위서) 땅 위의 강물이 1에서 생겨나[生] 바다로 돌아가니, 이것이 썰물[汐]이 된다.

地下水成於六入干江為潮(지해수성어육입간강위조) 땅 아래의 바닷물이 6에서 이루어져[成] 강으로 들어가니 이것이 밀물[潮]이 된다.

日潮日汐十二相沖以卯酉為首(일조일석십이상충이묘유수) 밀물과 썰물은 십이상(十二相)의 상충(相沖)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묘와 유에서 시작된다.

以其六數 故三魂六其六而三十六(이기육수 故삼혼육기육삼십육) 이기육수고삼도육기육삼십육 그것이 6의 수에 의하니 삼도三魂는 6*6=36이요 三龍減一六於三十六(삼룡감일육어삼십육)삼도三龍은 36에



서 1*6을 감한 것이요 三蛇減二六於三十而十八(삼사감이육어삼십팔) 삼사三蛇는 30에서 2*6을 감하여 18이 되니 이렇게 조수潮水가 감소한다.

減一馬九其六加於十八(감일마구기육가어십팔) 일마一馬는 18에 9*6을 더한 것이요 三羊八其六加於七十二(삼양팔기육가어칠십이) 삼양三羊은 72에 8*6을 더한 것이며

二猿七其六加於一百二十(이원칠기육가어일백이십이) 이원二猿은 120에 7*6을 더하니 이렇게 潮水가 증가한다.

卯辰巳陰包陽而氣盈(묘진사음포양어기족) 묘卯·진辰·사巳에는 음陰이 양陽을 가리니 기氣가 축소되고 午未申陽包陰而氣盈(오미신양포음어기영) 오午·미未·신申에 양陽이 음陰을 가리니 기氣가 차오른다.

地之喘息海之嘘吸(지지흡흡해지흡흡어) 땅이 할떡임이요, 바다가 숨을 쉽다.

十五六分十一成(십오육분십一成) 십오육十五에 나누고 십十과 일一에 이루어져 水之進退 潮汐(수지진퇴 潮汐) 나아가고 물러나니 밀물이



해조문이 새겨진 바위.

라, 썰물이라 이름하네 有時加減通嘘吸(유시가감통흡) 때를 따라 불어나고 줄어들며 호흡을 하여 歸海入江自獨滿(귀해입강자독칭) 바다로 돌아가고 강으로 흘러들어 스스로 흐려지고 맑아지네 歲庚申夏(세경신하) 경신년(1860년, 철종 11년) 여름 韓窩翁와 宋心斗 송심두 쓰다.

監董 감동 徐恒淳 서항순 權鉞 권횡

마치 한 편의 철학시를 읽는 느낌이다. 때마다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조수 간만의 차이를 땅이 할떡이고 바다가 숨을 쉬는 모양으로 시적으로 표현했다. 우주의 거친 호흡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나아가고 물러나니 밀물이라 썰물이라 이름한다고 했다.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등을 동원하고 음양오행으로 바닷물이 더해지고 감해지는 원리를 설명한다. 선인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권항완 편집국장